

목차

움직이는 학교 정보

움직이는 학교의 각종 정보 - 1p

제주도 사전 조사

(문화예술, 사회이슈, 환경&신화, 역사)

제주의 예술가들 - 8p

제주도 제2 공항 이슈 - 15p

제주도의 특별한 자연 경관과 환경 & 제주도의 창조 신화 - 17p

제주 4.3 - 23p

타 대안학교 사전 조사

교류 갈 타 대안학교의 정보 - 30p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성미산학교, 수지꿈학교, 샬롬자유학교, 산티학교,
산돌학교, 지혜학교, 금산간디학교)

하루 나누기

하루 나누기 9일치 - 47p

만든 사람 - 도운(총괄,표지,내용), 수영&한솔(목차), 예다&준형(표지)

움직이는 학교의 각종 정보

무빙가기 전 사전활동

회차	날짜	내용	비고
1	3/14	오리엔테이션 / 모듈정하기 (역할, 주제)	
2	3/21	우리가 제주로 가는 이유 (병권쌤 강의)	
3	3/28	4.3 관련 영상 시청 (설민석의 역사특강)	비행기, 배표 구매
4	4/18	주제모듈 발표 1 / 타 대안학교 정하기	
5	4/25	중간점검 및 타 대안학교 조사	
6	5/2	주제모듈 발표 2 / 타 대안학교 발표	<순이삼촌> 독후감 제출
7	5/9	워크북 자료 취합, 점검 / 교통편 확정 / 식단 짜기	
8	5/16	성교육	
9	5/23	마무리 (규칙정하기 / 준비물체크)	

주제모듈 + 기획 여행 모듈

주제	내용	모듈원
자연환경	1. 제주도 2. 제주신화 3.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거문오름.성산일출봉)	나도윤, 오재진, 고준형, 이승연
문화와 예술	1. 이중섭 2. 김영갑 (오름사진) 3. 강요배 (제주4.3)	김시준, 최유민, 김가은, 최정인
역사	제주 4.3	김수영, 박예다, 이대은, 박한솔, 안민
사회이슈	제2공항	이정수, 노하종, 양예윤, 이혜준, 이유민

역할 모듈

역할	모듈원	담당교사
워크북	고준형, 나도윤, 박한솔, 박예다, 김수영	병권T
결과자료집	오재진, 이승연, 양예윤, 이정수, 이유민, 노하종	
소식전달원	김가은, 최정인, 안민, 이혜준	승호리
사진, 영상제작	김시준, 최유민, 이대은	성이T

당번

역할	담당
반장	고준형
기상	노하종
청소	이유민
퇴소	이정수
취침	박한솔
음악	오재진, 김수영
통신원	김가은, 최정인, 안민, 이혜준
사진, 영상 제작	김시준, 최유민, 이대은

생활 규칙

움직이는 학교는 학교 밖의 배움이며 학습으로 인식합니다!

1. 삼無 : 음주 X, 흡연 X, 폭력 X (어길 시 경고 없이 귀가 조치)
2. 일과시간 이후 숙소 무단 이탈 금지
3. 핸드폰
 - 3-1. 밤 11시 이후 타 학년과 통화 및 연락 금지
(어길 때마다 전체 핸드폰 반납 시간 1시간씩 차감)
 - 3-2. 밤 12시 핸드폰 반납
4. 빨래
 - 4-1. 별꼴(1번째 숙소)에서 3번 가능 (상의 1번, 하의 1번, 수건 1번)
 - 4-2. 속옷과 양말은 각자 손빨래 하기

하루 일과

시간	내용
7:00	기상 및 준비 / 식사 준비
8:00 ~ 08:20	아침 식사
08:20 ~ 08:45	식사 당번&준비
08:45 ~ 09:00	아침 청소
9:00 ~ 09:20	아침 열기
09:20 ~ 10:00	이동
10:00 ~ 13:00	오전 일과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7:00	오후 일과
17:00 ~ 18:00	이동
18:00 ~ 19:00	휴식 / 식사 준비
19:00 ~ 19:30	저녁 식사
19:30 ~ 21:00	휴식 / 식사 당번
21:00 ~ 22:00	하루 나누기 / 사전학습 / 간식 먹기
23:00	소등 및 취침
24:00	핸드폰 반납

제주 일정표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비고
		오전	점심식사	오후	저녁		
6/7 (수)	이동			17:30 제주도착	하루 나누기	별꼴	부모님 9가정 반찬
6/8 (목)	역사 (4.3의 흔적)	10:00 4.3평화공원 (이상언 해설사)	도시락 (너븐송이 기념관 인근)	14:00 너븐송이 기념관 옴팡밭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비 복춘 4.3길	하루 나누기		
6/9 (금)	사회 이슈 교류	10:00제2공항 (박찬식 제2공항비상 도민회의 대표) 성산리 마을회관	매식 (최고의 밥상)	14:00 동백작은학교 교류(저녁 해 먹기, 모듬별 여행 기획)	하루 나누기		동백 학생들과 시간 조율
6/10 (토)	교류, 기획여행	자유여행 with 동백 친구			기획여행 발표 및 하루 나누기		
6/11 (일)	자연환경	10:30 제주세계자연 유산센터	별꼴	-14:00 성산 일출봉 광치기해변	하루 나누기		
6/12 (월)	자연환경 (제주민속신 화)	10:00 혼인지 11:00 삼성혈	-12:00~14:0 0 제주민속 오일시장	-15:00 귀덕마을산책 (거북등대 영등할망공원 괘물동산)	하루 나누기		부모님 9가정 반찬
6/13 (화)	문화예술	10:00 풀무질	도시락	15:00 이중섭 미술관 김영갑 갤러리	하루 나누기		김영갑 수 휴무 이중섭 월 휴무
6/14 (수)	자연환경	10:00 동백동산	동백	물놀이	하루 나누기		동백작은 학교
6/15 (목)	자연환경	08:00 한라산	매식(김밥)	한라산	하루 나누기 짐정리 저녁식사(교 사)	일기예보 확인	
6/16 (금)	이동	집으로					
6/17 (토)	휴식&타대안 준비						

6/18 (일)							
6/19 (일)	타대안 탐방						
6/20 (화)							
6/21 (수)							
6/22 (목)							
6/23 (금)	모꼬지	타대안 마무리	모꼬지 장소로 이동	모꼬지장소도 착	하루나누기	골미골 명품마을	
6/24 (토)		발표준비	발표준비	바비큐파티 (부모님 준비)			
6/25 (일)		☆ 발표 ☆	집으로~				

타 대안학교 교류 명단 (제주도 일정 마친 후 5일간 교류 진행)

지역	학교	학생
부산 금정구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최정인
광주 광산구	지혜학교	이정수, 오재진, 고준형
충남 금산군	금산간디학교 (중등)	나도윤, 김수영, 박한솔, 이대은
충남 서산시	산티학교	김시준
경기 가평군	살롬자유학교	이유민, 양예윤, 이해준
경기 용인시	수지꿈학교	김가온, 최유민
경기 남양주시	산돌학교	박예다, 안민, 노하종
서울 마포구	성미산학교	이승연

제주 교통편

가는 스케줄

버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완도공영버스터미널
23.06.07 (수) 11:40~13:51

배
완도항 => 제주항
실버클라우드 23.06.07 (수) 15:00~17:40

오는 스케줄

비행기	
김포행	청주행
제주에어 23.06.16 (금) 8:45	진에어 23.06.16 (금) 9:10~10:20
최유민, 이승연, 박예다, 안민, 이해준, 나도윤, 이정수, 고준형, 오재진, 최정인	김가온, 이유민, 노하종, 김시준, 양예윤, 박한솔, 이대은, 김수영, (쌤들 : 여병권, 승호리, 정성이)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숙소
6/7 (수)			전체		이동
6/8 (목)	3조 시리얼	도시락 (부모님 반찬)	4조 비빔밥		별꽃
6/9 (금)	3조 프렌치 토스트	매식 (최고의 밥상)	전체 +동백작은학교		
6/10 (토)	4조 간장 계란밥	매식 (자유 메뉴)	3조 파스타		
6/11 (일)	4조 주먹밥	2조 짜장면	3조 햄버거		
6/12 (월)	2조 떡만둣국	매식 (오일장)	1조 떡볶이		
6/13 (화)	2조 샌드위치	도시락 (부모님 반찬)	1조 라면		
6/14 (수)	1조 간장 계란밥	4조 마라탕	2조 냉장고 파먹기		
6/15 (목)	1조 누룽지	매식 (김밥)	교사		
6/16 (금)	매식				이동

* 간식은 상황에 맞춰 교사가 준비

밥 모듬

1조 : 박예다 안민 이승연 이대은

2조 : 최정인 박한솔 양예윤 나도윤

3조 : 김수영 이해준 김가온 이정수 김시준

4조 : 최유민 오재진 고준형 노하종 이유민

비상 연락망

정성이 010-5166-3597 / 여병권 010-7767-0705 / 승호리 010-2597-1360

제주도 사전 조사
(문화예술, 사회이슈, 환경&신화, 역사)

제주의 예술가들

이중섭, 김영갑, 훈데르트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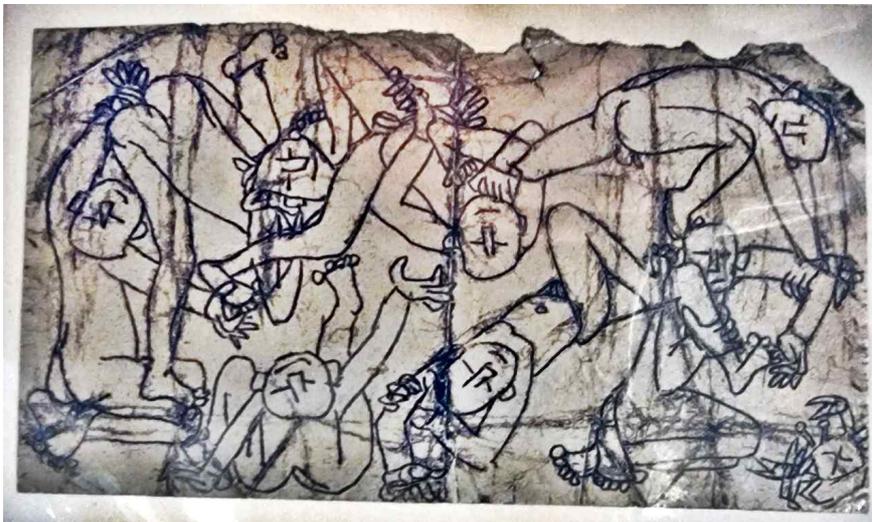
최유민 · 김가온 · 최정인 · 김시준

제주를 겪은 예술가 - 이중섭



이중섭은 삶과 예술이 분류돼 있지 않았다.
그의 생애, 시공간,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심리 상태인지에 따라 작품이 변화했다.

은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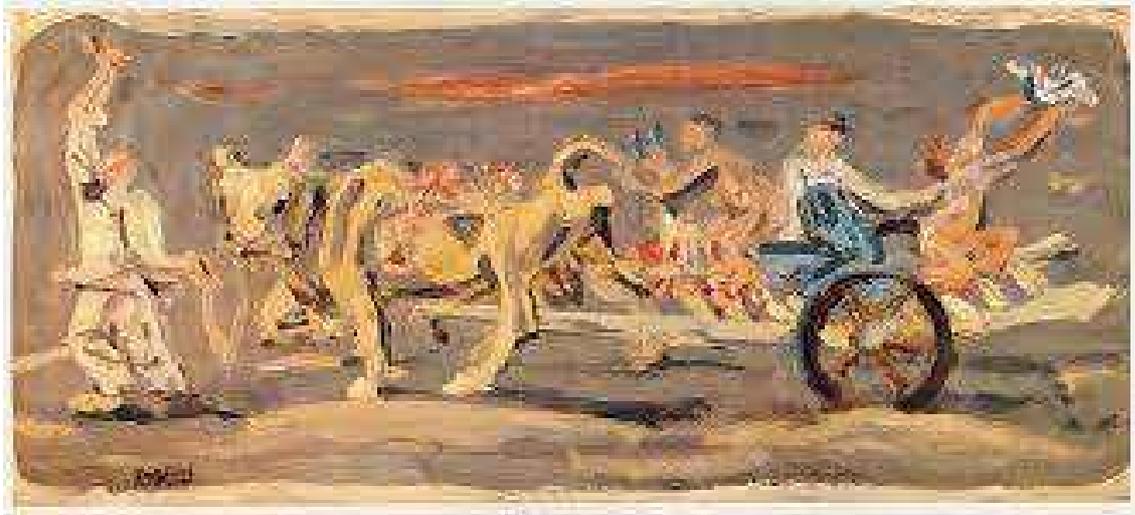
담배 포장지로 쓰인 은박 종이에 철필이나 못 등으로 선을 새기고, 물감을 바른 뒤 그것을 다시 닦아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그림이다.
실제로 전쟁 중 재료가 부족해 담배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다.

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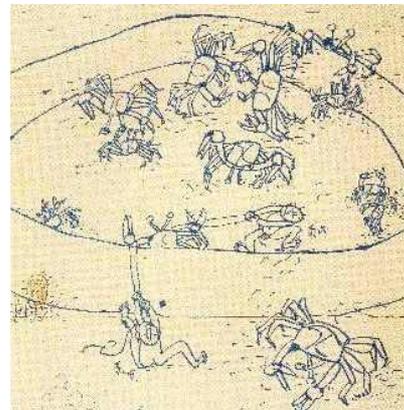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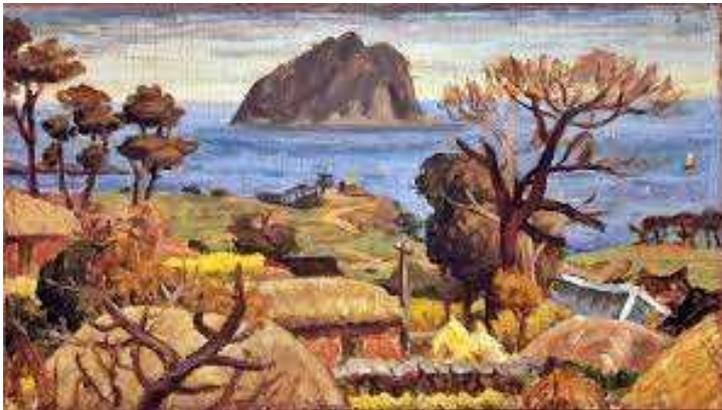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을 앓을 때 그려진 피 흘리는 황소이다.

이중섭과 제주



1.4후퇴 때 원산을 떠난 이중섭과 그 가족은 잠시 부산에 머문 후 제주 서귀포에 도착한다. 제주 서귀포는 이중섭에게 대단히 주요한 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가는 슬픈 이주가 태반이지만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은 즐거운 소풍놀이라도 가듯 흥에 겨운 이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 서귀포는 이중섭에게 있어 지상의 유토피아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 속 제주



썩썩이 보이는 풍경에는 초가집 사이로 나무, 전봇대, 썩썩이 어우러진 제주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그리운 제주도 풍경에서는 이중섭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 멀리 제주도의 썩썩과 문섬이 그려져 있다. 그 모습이 즐겁게 표현 되어 있다.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은 서귀포시에서 살면서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사람들의 인심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 짧은 기간 이중섭의 서귀포 체류는 그의 예술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의 창작에 대한 열의와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 미술관을 설립하였다.

제주를 사랑한 사진작가 - 김영갑



어릴때부터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청년으로, 달리 사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1982년부터 제주도와 서울을 오고가며 사진 작업을 하다 제주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1985년부터 섬에 정착하였다. 제주도 토박이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육지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지는 제주도의 하늘, 바다, 중산간의 들판과 오름, 역생들을 피사체로 삼아 사진을 찍었다.

제주의 혼을 담은 김영갑의 사진들



갤러리 두모악

갤러리 두모악은 사진작가 김영갑이 제주의 한 폐교를 직접 고친 공간이다. 밥 먹을 돈까지 아껴지 필름을 사 사진 작업에 모든 열정을 바쳤다. 이후 전시관을 마련하기 위해 폐허가 된 초등학교를 구하며 초석을 다질 즈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허리에 통증이 왔으며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손수 몸을 움직여 전시관을 만들기에 열중하였고, 2002년 여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이후 그는 2005년 5월 29일, 직접 만든 두모악에서 잠들었으며 그의 빼는 두모악 마당에 뿌려져 있다.

두모악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며, 둥근 산이라는 뜻인 '돛뒀'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른 뜻으로는 이주한 제주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다. 두모악의 내부 전시관은 '하날오름관'과 '두모악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물 뒤에는 무인 카페가 존재한다. 설거지는 본인이 해야 한다. 건물 왼쪽에는 공터가 있는데 가끔 전시회나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다. 안에는 용눈이 오름, 눈·비·안개 그리고 바람 환상곡, 구름이 내게 가져다준 행복, 지평선 너머의 꿈, 바람, 숲 속의 사랑, 오름, 마라도라는 작품이 있다. 유품 전시실에는 그의 유품이 전시되어있다. 영상 전시실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의 그와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던 사진과 영상이 있다. 야외 정원에는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 있다. 표를 구매하면 입장권으로 김영갑 작가의 작품엽서 한 장을 준다. 입구에서부터 야외 정원을 지나면 매표소 앞쪽에 작은 굿즈샵이 있다. 매표 후 정문에 들어서면 좌측에 유품 전시실이 존재한다. 여기를 지나면 제1전시실 두모악관이 나온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영상실을 만나며 상영하는 영상을 보고 옆에 있는 전시관에서 사진을 관람한다. 두모악관을 지나면 제2전시실 하날오름관이 나온다. 입구에 김영갑 작가의 사무실이 있으며 여기를 지나 유품 전시관을 관람한다. 마지막으로 무인 카페와 확장실로 가는 후문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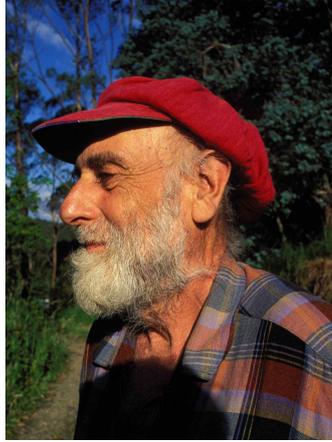
입장료

성인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제주도민	어린이, 경로(65세 이상)	3세이하, 장애인
4,500원	3,000원	1,500원	무료

운영 시간 (관람 시간 30분 전에 입장 마감)

봄(3~6월)	여름(7~8월)	가을(9~10월)	겨울(11~2월)
09:30 ~ 18:00	09:30 ~ 18:30	09:30 ~ 18:00	09:30 ~ 17:00

제주의 화가이자 건축가 - 훈데르트바서



화가로써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의 회화 속에 인간 그 지상 낙원 인식하고 그곳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가로써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장하던 훈데르트바서는 메마른 도시의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축물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온 건축치료사다.

훈데르트바서파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장하던 훈데르트바서는 메마른 도시의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건축물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도리 수 있도록 힘써온 건축치료사답게 훈데르트바서파크 역시 부지 내에서 자라던 1600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거나 뽑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어, 그야말로 자연과 저우려져 하나를 이루는 자연속의 예술적인 파크로 재탄생시켰다.

제주와 4.3을 그린 화가 - 강요배



강요배 화가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제주 4.3 사건에 관심이 많아 4.3에 대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여 1992년에는 제주민중항쟁사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1998년에는 화집 동백꽃 피다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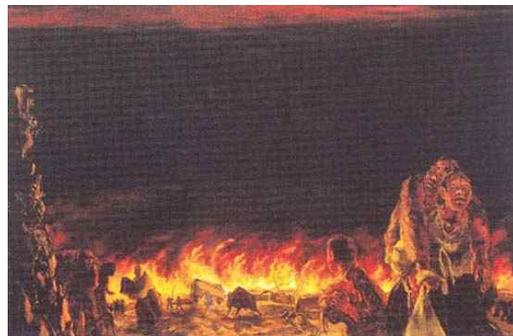
1998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민족예술상을 수상했고 2007년부터는 민족미술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민중항쟁사 연작 그림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작가 강요배가 경기도의 외진 농가에서 완성한 작품이다. 역사의 맑은 바람을 쏘여 내 가슴 속 응어리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시도한 것이 제주민중항쟁사 연작 그림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화집



제주 4.3 항쟁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화집이다. 제주 민중들의 투쟁과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되살려내고, 4.3을 겪은 제주 사람들의 증언을 덧붙였다.

4.3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강요배의 그림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

제주도 제2공항 이슈

제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시공 예정인 공항이다.
현재 제2공항 시공 문제로 제2공항이 지어지도록 두어야할지,
막아야할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유민 · 이혜준 · 이정수 · 노하종 · 양예윤

제2공항 이슈

제주 제2공항 시공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제2공항으로 인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공항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어디에 지어지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공항의 단점

문제점으로는 성산읍에는 성산일출봉, 광치기 해변, 두산봉, 신양 섭지 해변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제2공항이 건설되어버린다면 성산읍에 여러 오름이 사라지고, 근처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육지보다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서 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해녀들의 물질이 어려워진다. 또 비가 내리면 제주도에 있는 숨골이 하수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항이 지어지면 그 숨골이 막혀 홍수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제2공항이 건설되어 땅이 콘크리트로 덮이게 되면 그만큼 홍수가 날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급증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가장 큰 원인인데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제2공항의 장점

제2공항이 건설되었을 때의 장점도 있다. 현재 제주공항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포화 상태이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의 항공권 구매가 어렵고 혼잡한 공항 상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공항 확장 사업을 30년간 진행해왔지만 이용객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현재 제2공항 이슈로 인해 치열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할지는 많은 국민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제2공항 예상



제2공항이 건설되면 막히게 되는 제주도의 숨골



제주도의 특별한 자연 경관과 환경 & 제주도의 창조 신화

화산섬이라는 특징을 가진 제주도는 특별한
자연 경관들과 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다양한 창조 신화들이 존재한다.

오재진 · 나도윤 · 고준형 · 이승연

제주도 창조 신화

제주도는 동 떨어져있는 섬이라 옛날부터 육지와 활발하게 교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군신화가 있듯이, 제주도에도 제주만의 여러 창조 신화들이 생겨났다.

영등 할망

음력 2월 초에 찾아와 해상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진 영등신이다.
영등신에 대한 의례를 치르는 것은 새봄의 개화를 촉진하는 구실과 함께 새해의 시작을 뜻한다. 영등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절기에 북서풍을 몰고 오는데, 이는 계절의 전환을 상징한다.

- 영등할망신화공원



영등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이남에는 흔히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이는데, 이 신은 2월 초 하루에 내려와서 20일 경에 올라간다고 믿는다.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비를 맞아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풍년이 들고, 딸을 데리고 오는 해에는, 치맛자락이 나부껴서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 영등 굿

영등굿은 제주도 해녀들이 힘을 모아, 바다의 해산물이 잘되고 풍요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벌이는 마을굿이다. 제주도에 다양한 마을굿이 남아있는데, 오늘날까지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는 것은 신과세굿(정월)과 더불어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이다.



대별왕 소별왕

제주도에 전승되는 창조신화로써 천지왕의 두 아들인 형 대별왕과 동생 소별왕이 해당 신화의 주인공인데 이들 형제가 창조된 세계에서 정승과 이승 둘 중 누가 이승을 다스릴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신화다.



"아우야. 이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중에는 도둑놈도 있으며 사기꾼도 있지. 그들을 잘 다스리려면 힘과 슬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을 다스려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

- <대별왕 소별왕> 중에서..

설문대 할망

제주도를 창조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여신이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신화 속 인물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조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할미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나이 든 할머니가 아니다. 할머니는 크다는 뜻을 지닌 우리말 '한'과 생명의 뿌리를 뜻하는 '어머니'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그래서 젊은 여신도 신성한 존재라는 의미로 할미라고 부른다.



설문대 공주는 본래 옥황상제의 딸이었지만, 죄를 지어 땅으로 쫓겨난다. 그 순간 설문대 공주는 바다 한 가운데 아름다운 섬을 발견한다. 그 때부터 흙을 지어 나르며 자신의 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에 걸쳐지고, 빨래를 할 때면 한라산을 깔고 앉아 지귀섬과 관탈섬에 다리를 디딘 채 우도를 빨래판으로 삼아 빨래를 했을 만큼 엄청나게 몸집이 큰 마고 할멈이다. 그래서 할망이 오줌을 누었더니 제주도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성산리 앞바다에 작은 섬이 생겼을 정도다. 제주도에 있는 많은 오름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으로 흙을 나를 때 치마에 난 구멍으로 흙이 떨어져 생긴 것이다.

제주도의 문화적 지형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자연 경관들과 환경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있다.

거문오름 (검은오름)

거문오름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오름이다.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되었다. 숲이 우거져 검게 보여 검은오름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이루어진 기생화산 중 하나로, 신생대 제3기와 제4기에 걸쳐 생성되었다. 오름이 생성될 당시 흘러나온 용암류가 경사지형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생긴 용암동굴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 중 뱅뒤굴, 만장굴, 김녕굴, 당처물동굴은 그 규모와 동굴 생성물 등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깔때기처럼 움푹 들어간 분화구에는 낙엽수림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화구호에는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네스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화산활동을 통해 생성된 제주, 용암동굴,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용암동굴, 미래의 자연유산 등 제주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경험해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마그마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체다. 화산활동 시 분출된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화산재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끈끈한 성질을 띄게 되었고 이것이 층이 쌓인 것이 성산일출봉이다.



한라산

한라산의 높이는 해발 1,950m이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라산이라는 이름에서 한(漢)은 은하수(銀河水)를 뜻하며, 라(拏)는 맞당길 나[相牽引] 혹은 잡을 나[捕]로서, 산이 높으므로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남쪽 하늘에 있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었으며, 이 별을 본 사람은 장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제주 4.3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안민 · 박예다 · 김수영 · 박한솔 · 이대은

4.3이란?

1947년 3.1일 제주도는 3.1절을 28주년을 맞아 도에 곳곳에서 기념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관덕정(조선시대 시청) 앞 광장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이 탄 말 뒷발굽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기마경찰이 그냥 가려자 화가 난 군중들은 경찰에게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시민 폭동으로 오인한 경찰이 총을 발포하여 이에 군중 8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사망자 6명 중 5명은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기위해 발포한 것이 아닌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점차 경찰들에게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간합동파업이 시작된다. 노동자, 학생들은 일제히 파업했고, 몇몇 경찰들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파업은 13일까지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다. 파업 참여자들은 3.1 발포사건에 대한 사과와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미군정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였고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파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파분자의 거점이라며 제주도민 모두를 좌파로 몰아갔다. 또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 세력을 모두 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 총파업을 와해시키려고만 했다. 이때 파업에 참여했던 경찰 66명이 해임되었고 이 자리를 육지에서 온 서북 청년회 소속 사람들로 충당 되었다. 이때 서북 청년회란 북한 평안도 지역 지주 계층 출신으로 북한의 토지개혁 때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손으로 월남한 사람들,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개신교인 등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가 소련군정에게 탄압받은 사람들이 함께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해 엄청난 피해의식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빨갱이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조병옥을 비롯하여 응원경찰들을(응원경찰은 제주도에서 채용된 경찰이 아닌 육지에서 제주도에 내려온 경찰들을 말한다.) 제주도로 파견을 보내, 조병옥의 지휘 하에 경찰은 파업 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며,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이런 탄압 때문에 3월 말에는 파업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탄압은 계속 되었고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경찰들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았다. 1947년 3.1 발포사건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 미 정부는 제주도를 붉은섬이라고 지목하였고 이에 응원경찰과 서북 청년단은 ‘빨갱이 사냥’이라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동요 시켰다. 그러던 중 5.10 남한 단독 선거가 시작되었고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결합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고 350명의 무장대는 제주도에 있는 24개의 경찰지서중 12개 지서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 단원의 집을 급습했다. 미군정과 무장대는 4월 28일에 평화 협상을 했으나 사흘만인 5월 1일 서북청년단으로 인해 제주도에 ‘오라리 방화 사건’이 벌어지고 5월 3일 미군이 경비대에 총 공격을 명령하에 따라 평화협상은 깨졌다. 경찰들은 우익청년단이 방화한 오라리 방화 사건을 무장대가 한 일로 몰아갔고 미군정은 ‘오라리 방화 사건’ 이후 평화적인 해결 대신에 무력에 의한 강경진압 작전을 진행했다. 무장대는 5.10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보냈고 이에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만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가 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판단하고 6. 23 재선거를 시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그러자 제주도에 대한 강경 토벌 작전이 실시 되어 도민들이 집단 희생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후 정부는 제주도에 군 병력을 증파하여 강력한 진압 활동을 펼쳤고 해안에서 5km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대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군경 토벌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 살생하기 시작하였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해안마을로 내려간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하였다며 죽었다. 하지만 군경토벌대만 학살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무장대들도 경찰가족들과 우익인사들을 죽였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 수 희생되었다. 복수는 복수를 불렀고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이 극에 달했다. 1949년 5월 10일에야 재선거가 이뤄졌고 그해 6월 무장대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 4.3은 막을 내렸다.

제주 4.3은 진상규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되지 않은채 진상규명은 끝이 났다.

4.3 평화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4.3 추모비



제주 4.3 평화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4.3의 역사를 담은 그릇의 형태로 지어져 있다.

제주 4.3 평화 공원은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가역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 인권 기념 공원이다. 특별법 공포 등이 이어져 2003년 4월 3일에 평화공원 기공식이, 2008년 3월 28일에는 평화 기념관이 개관하였다. 공원에 가면 피해자들의 이름이 한분 한분 적혀있는 추모비를 볼 수 있다.

광치기 해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33)

광치기 해변은 썰물 때보이는 드넓은 암반의 모습이 마치 광야 같다고 해서 유명한 곳이다. 또 광치기 해변에 서서 보면 한눈에 보이는 성산 일출봉과 드넓은 바다가 굉장히 이뻐서 인기가 많은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치기 해변은 사실 관치기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주사람들이 4.3 사건때 관을 가지고 와 시신을 수습하던 곳이라 관치기 해변, 관치기 해변하다가 지금의 광치기 해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븐숭이 4.3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 3길 3)

너븐숭이 4.3공원은 1949년 1월 17일 북촌 주민 대학살을 위령하기 위해 건립 되었다. 북촌 주민 대학살은 무장대가 군인 두명을 죽이자 군인들이 보복성으로 북촌리 주민들을 대학살한 사건으로 순이 삼촌의 배경이기도 하다. 너븐숭이 4.3 공원에는 순이 삼촌 문학비와 4.3 당시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모습을 상징화한 비석도 있다.



너븐숭이 4.3 유적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79-2)

너븐숭이 4.3 유적지는 너븐 숭이 4.3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너븐숭이 4.3 유적지에는 애기 무덤이 있는데 이 애기 무덤은 4.3때 묻어줄 어른이 없는 애기들의 시체를 임시 매장해두었던 곳으로 임시매장된 그 상태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라고 한다.



타 대안학교 사전 조사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 비인가, 비정규, 입학금 및 학비 10만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84

전화 : 051-514-8812

이메일 : udada2001@hanmail.net

가고 싶은 이유

사실은 경상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왜냐하면 우리 학번에서 사투리 쓰는 사람이 그닥 없기도 했고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구는 보수의 도시답게 예고랑 실업고 밖에 없었고, 주위 구미나 합천에는 대안학교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 서울로 가나 하던 중, 부산 거침없이 우다다학교를 알게 되었다. 알아보니 개인의 역량에 따른 학년 졸업이라는 점도 멋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여행을 많이 하는 학교라는 점이 이끌렸다. 보따리 수업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일본국제교류프로그램도 하는 게 자유롭고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달리 외부활동이 많은 대안학교의 교과 과정과 특이한 학년 과정의 특성에 대해 더욱 알아보고 우리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었다.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가서 즐겁게 노는 것이다!

중등 3년, 고등 2년

중등졸업심사기준 : 본인 향우에 대한 의지, 프로젝트 수행정도, 출결상황,

학부모 및 담임 의견

고등졸업심사기준 : 졸업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1인 1악기, 1인 2작품, 1인 2체육활동
1학기 이상의 편집부활동, 진로상담은 필수 과목

학부모 및 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1년 과정 연장 가능

학교 철학

- 학교를 나왔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든,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이든 혹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뛰쳐 왔든 성장기에 적절한 교육은 그 누구에게나 절실하며, 포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이 학교여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도시 속에서 도시의 자원들과 함께 미래를 펼쳐야 한다.

농촌에 기숙형 대안학교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도시 속에서 도시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행하는 대안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다.

탈학교는 개인적 부적응이 아닌 사회와 학교의 괴리가 빚는 현상이다. 훈육을 벗어나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대안 교육은 그런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 맞춤형 학습과 자기 길 찾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인생도 다양해진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 관심, 능력, 그리고 삶의 지향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 낮은 곳으로의 삶의 지향

다 다름을 인정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높은 곳이 아닌 주위를 살피는 삶의 지향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부딪히는 상황마다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교육방법

- 감동

일상속의 작은 감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

- 훈련

살아가며 기본적인 예절, 품새 등을 배운다.

정규교과

지식쌓기 - 국어, 역사, 영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영화로 보는 세상, 법과 사회, 경제, 어우러지는 사회 등 선택수업 및 분반

마음쌓기 - 미술, 체육, 음악 등 선택수업

세상넓히기 - 작품활동,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 등 중등고등 과정을 나누어 개설

프로젝트 교과

- 농촌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 보따리수업(년 1회 1개월간)
- 참 아름다운 도전(년1회)
- 일 더하기 일은?(반별)
- 일본국제교류사업(8월 국내, 12월 일본 우다다학생 5명 참가)
- 도보여행프로젝트
- 인턴십 프로젝트

성미산학교 / 5-5-2학제 (초등 5년, 중등 5년, 포스트중등 2년), 비인가 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256-31

전화 : 02-3141-0507

이메일 : sungmisan12@hanmail.net

교육목표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

성미산학교의 교육 목표의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스스로 서다'이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삶에 대한 관심과 성찰 그리고 학습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학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마을학교

성미산 마을에서는 10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를 해 왔습니다. 개발과 성장 대신에 생태와 돌봄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을 바꾸어 내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여러 마을활동을 하고 힘을 모아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성미산학교는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이다'라는 학습의 원형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려는 기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생태학교

성미산학교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힘을 받아 태어난 학교로 생태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미산학교의 교육은 '자연친화적인 감수성', '지속가능한 삶', '돌봄과 배려 중심의 학습', '마을 만들기'등 생태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3. 도시형 학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이고, 풍부한 학습 자원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미산학교는 이런 도시의 단점과 장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학습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는 도시형 학교입니다.

4. 평생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지금의 청소년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변화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을 직시하면서 자기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고정된 지식이나 능력보다는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학습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된다는 것은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초등저학년 (1~2) : 좋은 학습태도와 습관 기르기, 생태적 감수성 기르기가 목표.

놀이와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교육

초등고학년 (3~5) : 자기주도학습 능력 기르기, 생태적 삶 구성 능력 기르기가 목표.

‘프로젝트’ 통하여 진로 설계, 살림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 진행

중등 (6~10) : 자치와 자율의 문화 익히고 배우기, 학습 관리 능력 기르기,

생태적 삶 안에서 진로 설계해보기. 학습 계획서 기획하고 결과 발표하기, 식구 총회, 독서, 여행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중등과정 중 2학기는 장기간 농촌에 머물며

생태 프로젝트를 하는 이동학교 프로젝트 진행

포스트중등 (11~12) :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인턴십, 지적 성장을 위한 학습,

생태철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비전 세우기 등이 핵심

가고 싶은 이유

올해 내 논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해 성미산학교를 가게 되었다.

성미산학교에 ‘무운’이라는 귀어 동아리가 있는데 장년에 무아지경이랑 많이 교류를 하였고, 논문 작품 제작에 필요한 귀어 인터뷰를 무운에다가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골형 대안학교인 우리 학교랑 다르게 도시형 대안학교는 어떻게, 도시에서 마을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내 논문 작품의 배경이 도시형 대안학교인데 성미산학교에서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싶다.

수지꿈학교 / 9년제 초중학교 (저학년 1, 2학년 / 중학년 3, 4, 5학년 / 6, 7, 8, 9학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동천로 553번길 30

전화 : 010-2518-7303

이메일 : you-seoul@hanmail.net

학교철학

-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기초 철학으로 한다.
-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성 향상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에 둔다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요시 한다.
-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배우고 싶은 점

- 고학년 수학, 영어를 배워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잘 배워오고 싶다.
-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기본 예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들도 많았다.
그래서 욕설 사용을 줄이고 동심으로 돌아가보고 싶다,
- 우리 학교 가족회의와 수지꿈에만 있는 꿈 회의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학교 특징

꿈 회의

- 꿈 회의는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활동이다.
- 우리 학교로 치면 가족회의 안건 진행 및 회의 방법이 흡사하다.

1. 공동체 문화 만들기

인사하기

- 인사하기를 생활화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칭찬하기

- 칭찬하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성원들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을 수 있도록 한다.

고/미/안 실천하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 잘 지내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

2. 학습활동

- (협동학습) 학생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한 학습형태
- (살림/프로젝트학습) 학생들이 배울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지식을 찾고 조직하고 기록한 형태

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 공부를 통한 자율적 배움

살롬자유학교 / 중고등 통합 5년 + Socail changer 1년 과정, 기독교 학교

경기도 가평군 북면 석장모루길 11 2층

전화 : 010-4446-9596

이메일 : sfcy2019@naver.com

교육과정

중등과정 (7, 8, 9학년)

- 학교적응 / 자기이해
- 주도적 향상 / 생각 넓히기
- 진로탐색 / 작업장 수업
- 다양한 수업 / 작은 성공경험
- 중등검정고시
- 9학년 졸업 논문

고등과정 (10, 11학년)

- 마을 적응/ 더불어 살기
- 인생의 주인 되기 / 생각 굳히기
- 진로경험 / 비즈니스 연습
- 필요중심 수업 / 사회적 경험
- 고등검정고시
- 12학년 졸업 논문

사회 적응과정 (12학년)

- 인턴십을 통한 사회진출 경험
-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준비
- 졸업논문작성과 자기주장하기
- 대안적 삶과 소명찾기

인턴십, 세미인턴십

- 10학년,11학년 2학기에 세미인턴십
- 12학년 1학기에 인턴십

작업장, 자기-진로탐색

- 모든학년 1학기

교육철학

자유와 맛, 자발성의 교육

- 자유롭게 도전하기
- 작은 기쁨을 찾고 경험
- 도전에 대한 자기성찰

선택과 책임

- 선택하고 거절하기
-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
- 학습결과 자기성찰

소명 찾기

- 자기성찰 / 자기이해
- 꿈을 위한 다양한 경험
- 소명에 맞춘 자기진로

사랑의 멋,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기사랑

-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실천하기
-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부모님과 선생님,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하기
-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며 꿈을 위해 노력하기

대안의 삶, 넘나들며 배우기

- 마을과 함께
- 마을에 대하여
- 마을을 돕는

삶을 위한 교육

- 자신이 원하는 배움
- 나에게 필요한 교육
- 삶과 삶의 연결

지식교과

- 글과 삶, Say what?, 수학 그까이꺼, 화성가기, 한국근현대사, 모두의 인권, 엑셀, 이사갈 준비

수업

사랑의 맛

하나님

- 예배 모든학년, 성경공부 모든학년, 기독교 세계관 모든학년 1학기

이웃

- 가족회의, 마을봉사, 마을축제

자기

- 아침묵상, 몸 철학, 비폭력 대화, Free pass

대안의 삶 (수업)

넘나들며

- 무빙스쿨, 테마기행, 외부교육 위탁, 마을교육과정

삶을 위한

- 철학, 국토순례, 검정고시, 학생제안수업

하나님 나라

- 멘토멘티, 독거노인 친구맺기, 선교연대

산티학교 / 중등 3학년 + 고등 3학년, 기숙형 대안학교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문현로 703

전화 : 041-665-0213

메일 : dowin112@gmail.com

산티의 가치와 목표

- 생명 : 자신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 평화 :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 사랑 : 다름지라도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산티학교는 꿈을 찾는 학교입니다. 꿈을 찾는 것은 꿈을 만드는 것입니다.

꿈은 곧 자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꿈에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감동하고 시도합니다.

산티학교는 감동하고 시도하는 곳입니다.

산티의 마음가짐

1. 과정 - 결과보다 과정을 생각합니다.

-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이유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자립 -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 생활의 자립 : 스스로 먹고 자고 씻고 뒷정리합니다.
- 정신적 자립 :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 결정에 도움을 주되,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자신임을 명심합니다.

3. 소통 - 닫힌 마음을 경계합니다.

- 소통은 신체의 피돌기와 같습니다. 막히면 끓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닫힌 마음을 경계합니다. 의사결정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대결보다 모두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취소할 수도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집니다.

4. 개성 - 다른 향기를 존중합니다.

- 개성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입니다. 다른 냄새가 난다고 훈계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산티학교의 특징

장기 이동 학습 (여행), 진로 찾기는 꿈 찾기, 공동체 생활, 대안사회 추구, 지속가능한 행복

산티의 교육과정 편성

1. 교육내용 소개

(1) 단기캠프와 장기이동학습

① 단기캠프

- 1차캠프(3일내외) : 공동체캠프, 자연과 함께, 함께 어울리기
- 2차캠프(7일내외) : 주제별 프로젝트형 캠프, 수업의 연장, 몸 쓰고 체험하기

② 장기이동학습

- 공통 : 2학기는 전체가 이동형 여행학기이며, 진행은 여행준비 집중학습(4주), 장기여행 (50여일), 여행평가 후속학습(4주)으로 구성된다.
- 중등부 [국내이동학습] : 다양한 시도, 제주 탐방, 연극놀이, 공동체훈련, 봉사활동(영아원, 장애인시설 등)
- 4학년 [해외이동학습] : 자립과 소통, 시야확대, 자신 돌아보기
네팔(트레킹, 홈스테이), 인도(문화체험, 봉사활동)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자아찾기, 극기) 등
- 5학년 [해외이동학습] : 교육봉사, 배우고 익히기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 자립, 자기 돌아보기, 다양성, 도전, 봉사의 가치를 지닌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시기의 세계관 형성에서 인식의 한계를 허물고 인식을 확장합니다.
- 단순한 유람이 되지 않도록 한 지역에서 상당기간을 체류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필요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 해외여행은 인도·네팔에서 문화체험과 트레킹,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라오스·태국·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교육봉사와 공동체체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자기와의 대화 등을 진행합니다.
- 국내여행은 '우리 땅 밟기'(제주 올레길, 지리산 종주 등)와 '다양성 여행'이라는 주제로 연극체험과 공동체 훈련, 봉사활동(장애인시설, 영아원 등)을 합니다.

산돌학교 / 5년제 비인가, 2+2+1(1~2 배움과 익힘, 3~4 나눔과 실천, 5 만남과 선택)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55-28

전화 : 031-511-3295

학교 철학

창조적 자유를 기르는 교육

사람은 본래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적인 자유를 스스로 양심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과 사회,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적 자유를 뜻합니다.

깨달음을 위한 교육

우리는 학습자 스스로 오랫동안 궁리하여 도달하는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하며, 많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씨름하고 매달리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께 열기 위함입니다.

통전성에 눈뜨는 교육

인간의 발달을 머리, 가슴, 손이라는 세가지 차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식하고 고루 발달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을 낱알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 자연, 사회 문화적 보존 안에서 다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성이 꽃피면서도 자연, 공동체, 사회와 균형을 잡고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에 질을 지향합니다.

교육과정의 기초

영성교육과 먹을거리 교육, 쇠소 교육과 생활관 교육, 노작 교육과 예술 교육, 독서와 명상과 암송, 자기 주도 학습, 자치 활동

교육과정의 구성

- 프로젝트 학습 (살림, 창업, 인도 여행, 인턴십, 삼인행, 졸업 작품 등)
- 열린 학습 (필수 독서, 체육, 우리말, 국사, 영어, 수학, 농사, 예배, 인편, 산돌 철학 등)

학사 일정

3월 - 개학식, 수업 신청, 입학식, 신입생 환영회, 수업 안내

4월 - 파종, 예배, 우리땅 예행 연습, 기후정의 파업, 4.19 행사, 5학년 3인행 발표

5월 - 귀가, 우리땅 발대식, 해단식, 5학년 인턴십

6월 - 5학년 귀교

7월 - 인턴십 발표, 동아리제, 대청소, 방학식, 여름방학, 교사연수

8월 - 개학식

가서 배우고 싶은 것

우리 학교와 다른 기독교 학교의 차이를 알아보고 싶다. 또 학생 자치와 동아리 활동 등 학교의 일상 생활이 우리 학교와 어떤 점이 다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

지혜학교 / 중고등 통합 6년제 대안학교

62394 광주 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485

전화 : 062-962-0981

이메일 : sophia9613@hanmail.net

교육과정

2010년 개교한 지혜학교는 크게 세 번의 교육과정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14년에 생겼는데, 지혜학교의 교육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과 인문학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두 번째는 2017년에 생겼다. 철학과 인문학을 강화한 2014년의 기초 위에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수업제로 바뀌었다. 세 번째 변화는 2021년의 기초과정 2학년, 본과정 2학년, 심화과정 2학년이라는 새로운 학제개편이다. 즉, 231에서 222로 학제 개편하여 철학·인문학 중심 교육과정 강화를 했다.

지혜학교 교훈

지혜가 차서 흘러넘칠 때 그것은 사랑으로 넘쳐나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는 만큼, 그들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다.

금산간디학교 /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

충남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로 811

전화 : 041-753-7054

이메일 : lee.bh@gandhifree.net

학교 특색

- 작은학교
- 위대한 불복종 정신 (획일화 된 기존 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쓸모있는 교육, 탁월성 교육
(자아의 진정한 표현, 활짝 핀 개성, 고유한 잠재력 속에서 탁월성을 기대)

교육 철학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마을을 디자인 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립적인 삶을 연습합니다. 배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교육,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학기 교육내용 (중등)

1학기 (만남)

서로 알아가기, 친구되기, 학교 알아가기, 도보여행

2학기 (자기확장)

지리산 종주, 자기주도학습 익히기, 해외 이동학습 준비

3학기 (지구촌 시민교육)

15주 필리핀 자기주도학습

4학기 (사랑과 더불어 살기)

사회 봉사활동, 자기주도학습, 학생회 준비

5학기 (자기발견)

자기발견의 뮤지컬과 성장의 부름 의식

6학기 (진학준비, 3년 마무리)

개별 졸업 작품 및 공동 졸업작품 발표, 진로 탐색과 진학준비

3가지 영역의 선택 수업

지식교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지식을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연습하기
(국,수,사,과,영,도,역)

자립교과

자립하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자급 기술을 배우고 머리와 손에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능력 키우기
(요리, 제과제빵, 손 바느질, 목공, 농사, 비누)

감성교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를 발견하고, 예술활동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 나가기
(도예, 미술, 회화, 캐리커처, 작은악기, 한지공예)

특별한 교육 과정

졸업작품

깊이 있는 자기발견을 바탕으로 한 졸업작품은 좋아하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를
깊이있게 공부하는 시간. 익숙한 방식에서 한걸음 다르게 용기내는 정리의 시간.
(자아성찰형, 자기발견형, 프로젝트형)

에포크 (주기집중수업)

가르치는 과정과 배우는 과정 각각의 리듬이 달라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5일동안 전문강사와 함께 몰입의 시간을 경험한다.
(바투카타, 싱어송라이터, 비보잉, 가죽공예, 라트노프스키조형예술휴작업, 나무그릇,
화덕만들기, 마당극, 적정기술)

배우고 싶은 점

에너지 전환 기술을 배우고 싶다. 에너지 전환 기술을 배워 석유와 핵에너지의 의존을 벗어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해보고 싶다.

하루 나누기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하루 나누기

이름 _____

1. 오늘 어떤일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잘한일 & 못한일은?

3. 오늘 하루를 다섯글자로 하면?

MEMO